

자본시장통합법 국회소위 통과...‘금융기관 겸업 허용’

지방은행 “자금 썰물” 강력 반발

光銀 등 6개 지방銀 내일 대구서 저지 대회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 심사소위원회(금융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의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방침에 대해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으로 구성된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조합원 700여명은 19일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자통법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17일 지방은행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자통법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영역을 허무는 일종의 겸업허용을 골자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대항해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전 문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이 중·소형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등 금융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자본규모가 미미한 지방은행들은 대형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증권사가 은행처럼 일반 고객예금을 수신하고 자동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를 가능케 하는 지급결제 기능을 가짐에 따라 지방은행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최근 지방은행노조협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되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자금이 최대 5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요구불예금과 대출금리 간의 차이(예대마진)를 5.7%로 가질 때 2천565억원 가량의 이익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자금이탈에 따른 금리인상과 지역 중소기업대출을 어렵게 해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조성된 소액결제 자금을 기반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해 왔는데 자금이 증권사로 유출되면 그 기능이 축소되고 금리상승의 부작용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할 것이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의섭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자통법이 2009년 시행되면 거대 금융자본이 지방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등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라면서 “특히 증권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지방은행의 예금이탈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유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이중구 의원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전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현재도 금융자금이 증권으로 몰리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5~16일 구례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열린 ‘호남지역 여성경제인 경영혁신연수’행사에 참석한 광주, 전남북지역 여성경제인들이 초청강사의 혁신 관련 주제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여성결합 광주·전남지회 제공>

호남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는 혁신형 여성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지난 15~16일 구례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호남지역 여성경제인 경영혁신연수’ 행사를 가졌다.

광주·전남, 전북지부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 행사에서는 ▲ 대기업·여성기업 상생을 위한 구매 조달 ▲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설명회가 마련됐다. 또 이관형(전남대) 교수의 ‘여성 CEO의 리더십’, 김홍걸(FUN 경영 대표)씨의 ‘혁신’ 등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구례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실 담그기, 매실차 만들기 등 현장체험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압화전시관, 잡자리 생태관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부동산·음식업 등 대출기준 강화

은행, 금리 인상·전결권 축소 등 리스크 관리나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건설, 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데다 증권 건설업체인 ㈜신일의 부도여파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경기 민감업종에 적용하는

대출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또 이들 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보전정비율 특례 적용에서도 제외했다.

신한은행은 이와함께 이번주부터 직접장 전결로 늘려줄 수 있는 소호 대출 한도를 종전의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체와 음식·숙박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매우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말 부동산 임대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폭을 축소했다. 또 이달 초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 대출집행 때 자금유출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지난 주 중기대출의 33% 수준인 비제조업 대출이 용도 이외로 유동되지 않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연합뉴스

高金利 경쟁

예금금리 5%는 기본

시중은행들이 특판이나 우대한다 확대 등으로 금리경쟁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시중은행들이 연 5.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증시호황 등으로 은행권 전체 수신이 감소하고 있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경쟁은행보다 0.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인 ‘더블플러스 통장’에 대해 최고 연 5.30%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이달 말까지 연 5.20%의 확정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에스큰기쁨예금’을 1조4천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이 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파워맞춤정기예금’에 대해 1년만기 연 5.10%의 금리를 주고 있다. 농협이 지난 달부터 판매한 ‘브라보 백년예금’도 최고 연 5.4% 금리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공기업 부채 119조원

2005년보다 20% 늘어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가 119조원에 이르는데 2005년에 비해 2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해 놓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29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결산기준 118조9천553억원으로 전년의 99조1천262억 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1년 새 부채가 20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24개 공기업 중 전년보다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은 모두 16개였다.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공기업은 인천항만공사로, 3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무려 52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한국감정원은 1천726원에서 2천

939억원으로 70%나 급증했다.

한국토지공사 부채는 12조3천868억원에서 19조5천16억원으로 57%가 증가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6천988억원에서 1조421억원으로 49% 늘었다.

반면 24개 중 6개 공기업은 부채가 줄어들었는데, 갑소폭은 크지 않았다. 부채감소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조폐공사로 634억원에서 578억원으로 9% 줄었고 한국마사회·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도 부채가 감소했다.

/연합뉴스

인천~뉴욕 왕복 133만원

아시아나 항공, 6~9월 해외항공권 50% 할인

아시아나항공이 올 여름 휴가철 고객들을 잡기 위해 반값 왕복 항공권을 내놓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여름 성수기에 휴가 계획을 세우는 고객을 위해 정상 가격의 50% 정도 수준인 ‘실속 해외 왕복항공권’을 출시했다.

이 실속 왕복항공권은 인터넷 회원에게만 적용되고 한정 판매되지만 대부분 노선의 최저 가격이 정상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단기간 해외 여행을 원하는 사

람에게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아시아나는 설명했다.

8월 6일 출발하고 45일 체류 가능한 인천-뉴욕 왕복 항공비는 정상대로 받을 경우 300만원을 가볍게 넘지만 실속 항공권을 이용하면 133만원에 불과할 정도다.

여름 휴가철에 가장 인기 있는 중국 노선의 경우 최저 실속 왕복항공권을 기준으로 인천-광저우가 36만1천원, 인천-난징 49만4천원, 인천-베이징 37만7천원, 인천-상하이 34만원, 인천-엔타이 18만8천원, 인천-충칭 60만8천원, 인

천-칭다오 22만6천원, 인천-하얼빈 41만8천원이다.

일본 노선은 김포-하네다 왕복이 46만원이며 부산-오사카 33만원, 인천-나고야 36만원, 인천-나리타 36만원, 인천-오사카 30만원, 인천-후쿠오카 26만원, 제주-오사카 40만원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은 부산-마닐라 38만원, 부산-호찌민 40만원, 인천-마닐라 38만원, 인천-방콕 42만원, 인천-타이베이 26만원, 인천-푸켓 48만원, 인천-하노이 38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itlee@

대명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수 우수

(주)대명엘리베이터가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주)대명은 지난해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오터스엘리베이터 등이 선정된 데 이어 국내 6개 업체 가운데 4번째로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가 됐다.

우수업체에게는 공공기관의 보수계약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80-061-6363.

회사 관계자는 “최근 승강기 사고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안전한 승강기 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인터넷뱅킹 최우수

농협은 인터넷금융서비스 평가기관 스톡피아의 인터넷뱅킹서비스 현황 조사 결과 가장 우수한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포함한 총 17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중 거래서비스, 고객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사용의 편리성, 속도 및 안정성 부문 등 50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한 모니터링에서 일관된 성적을 거뒀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www.홍스페이스.kr

www.hongspace.kr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구도청옆)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7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아유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완비

상담전화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